

CEO Report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2019. 4

이승준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요약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기온과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관리 전문산업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장기간에 걸친 기후 패턴의 변화로 정의되는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임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은 인류의 활동 때문으로 과학적 결론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된 관심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대응으로 옮겨가는 추세임

보험산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은 크게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물리적 위험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대응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전환적 위험으로 대별되며, 이는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보험, 시장, 운영 위험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침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위험의 여러 요소를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실무 사업부서의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친환경 보험상품 개발과 친환경 기술 및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한 자산운용으로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환경 관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제시함

CONTENTS

I. 검토배경	1
1.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1
2. 인류의 활동이 초래한 기후변화	3
II. 보험경영과 기후변화 위험	5
1. 기후변화와 보험의 역할 증대	5
2. 기후변화 위험	6
3.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인수	10
4. 기후변화 위험과 자산운용	12
III.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15
1. 회사경영에 기후변화 위험반영	15
2.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신뢰도 제고	16

I

검토배경

1.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 세계적으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심해지고 있음

- 2019년 1월, 기록적인 북미의 혹한과 호주의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극단적 이상기온 현상¹⁾이 발생함
- 세계적으로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1조 3천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보고됨²⁾

▣ 빈발하는 이상기온 현상과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음

-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난 자연재해의 80%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 2014년에 일어난 폭풍, 가뭄 등 주요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인류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지목됨³⁾

1) New York Times(2019. 1. 29), "US Midwest Freezes, Australia Burns: That is the Age of Extremes"

2) Hassol et al(2016), "(Un)Natural Disasters: Communicating Linkages Between Extreme Events and Climate Change", WMO

3) National Geographic(2014), "Half of Weather Disasters Linked to Climate Change"

-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4-5등급의 대형 열대성 폭풍이 25~3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⁴⁾
- 지구온난화는 지난 35년간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더운 날 17번 중 16번이 2001년 이후에 기록됨
 - 최근 수년간 이어진 동아시아 여름의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도 기상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음
- ☑ 또한 지구온난화는 바닷물을 팽창시키고 북극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인구가 밀집된 해안 도시의 자연재해 피해를 키움
 - 지구 면적의 2%를 차지하는 해수면 위 10미터 지대에 세계 인구의 10%가 거주하는 현실에서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문제임⁵⁾
 - 이는 세계 인구 중 6억 3,400만 명 이상이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함
 - 북극 빙하는 10년마다 12.8%씩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10년간 9월의 북극 빙하량은 1979년 이래 최소였다고 보고됨
- ☑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건조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년간 산불 발생 면적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2017년과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불 피해액은 각각 180억 달러와 35억 달러에 달하였고, 사망자도 각각 47명과 104명 발생함

4) Holland, G. and Bruyère, C.L. Clim Dyn(2014), "Recent intense hurricane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Climate Dynamics*, vol. 42, pp. 617~627

5) Conservation International(2018), "F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

- ▣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의 집단 수용은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며 이로 인해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2018년의 경우,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135개국에 걸쳐 1,880만 명의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음⁶⁾

2. 인류의 활동이 초래한 기후변화

- ▣ 기후변화는 기후 패턴의 통계적인 변화가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평균적 변화뿐 아니라 변동성의 확대도 아우름
 - 기후변화는 기온과 강수량 등의 평균적 변화와 함께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등 변동성의 확대도 함께 의미함

- ▣ 기후변화의 원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과 이에 따른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임
 -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40% 이상 높아졌으며, 이는 지구 평균기온을 섭씨 1도 상승시킴

- ▣ 지구온난화에 가장 영향이 큰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증가 원인은 논쟁이 있었으나 점차 인류활동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인류는 생산 및 여가 활동 과정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왔음

⁶⁾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2018, 5), “2018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⁷⁾)는 2014년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류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바 있음
 - IPCC 특별보고서⁸⁾에 의하면 인류활동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벌써 약 1도 내외의 기온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됨⁹⁾
- ▣ 기후변화 관련 논의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된 논의로 점차 그 축이 넓어가는 상황임¹⁰⁾
-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을 규명하려는 환경이나 과학적 논의를 통해 인류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으로 결론지어짐
 - 지구온난화를 늦추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정책적 논의가 IPCC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증대되고, 이에 대처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경영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기후변화 위험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안함

7)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8) IPCC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9) IPCC(2018, 10), "Global Warming of 1.5°C", *IPCC Special Report*

10) Geneva Association(2018), "Climate Change and Insurance Industry: Taking Action at Risk Managers and Investors"

II

보험경영과 기후변화 위험

1. 기후변화와 보험의 역할 증대

- ▣ 기후변화로 인해 개인 및 기업 등 실물경제 부문에서 높아진 위험은 위험관리 전문가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증대시킴
 - 보험산업은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실물경제 전 분야에 걸친 위험관리 전문산업으로서 기능하여 옴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손해의 증가는 경제 전반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이는 보험산업에 기회로 작용함

-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금융산업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G20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작업반¹¹⁾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
 - 2018년 유럽연합(EU)도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실행계획¹²⁾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보험권역에서도 환경문제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보험감독자들의 국제적 의견교환을 위해 지속가능보험포럼¹³⁾을 2016년 12월 발족시킴

11)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동 작업반은 2017년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한 금융회사 공시체계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

12) EU(2018. 3), "Sustainable Finance: Commission's Action Plan for a greener and cleaner economy"

13) Sustainable Insurance Forum(SIF)

- ❑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보험산업의 역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UN 환경계획(UNEP)은 보험산업이 위험관리 전문성을 활용하여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함¹⁴⁾

- ❑ 위험관리 전문산업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때로는 천문학적 피해를 동반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보험산업의 성패를 좌우함
 - 보험은 위험을 시장에 기반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하므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는 보험사업의 초석임

2. 기후변화 위험

-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크게 물리적 위험과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과정에서 파생되는 전환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음

가. 물리적 위험

- ❑ 물리적 위험은 기후의 추세변화와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임
 - 기후의 추세변화는 지구온난화 같은 평균기온의 상승과 해수면의 상승 등을 들 수 있음

¹⁴⁾ UNEP Financial Initiative(2012. 6),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 기후변화로 인한 폭풍, 가뭄, 홍수, 이상고온,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킴
- ▣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7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3,3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사상 2번째로 큰 피해임¹⁵⁾
 - 2017년에는 세계적으로 보험손실액도 1,3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음
 - 당시 허리케인의 집중적 피해를 입은 미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 피해의 50%에 달한 것으로 보고됨
 -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도 2017년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21,000여 가구와 2,800개 기업이 18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당함
- ▣ Lloyd's의 기후변화 관련 손해액은 1980년대에는 연간 500억 달러였으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¹⁶⁾
 -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와 함께 해안가 대도시의 주거지 개발로 인구가 몰리면서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Lloyd's의 모델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cm 상승한 해수면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를 뉴욕시에서만 30% 이상 증가시킴¹⁷⁾
-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경제에 거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자원의 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적 경제 인프라의 사용을 막고 이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15) 한국보험신문(2018. 1. 21), “2017년 세계 자연재해 보험금 지급 1350억 달러”

16) The Guardian(2014. 5. 8), “Lloyd's calls on insurers to take into account climate-change risk”

17) Lloyd's(2014), “Catastrophe Modeling and Climate Change”

- ☑ 실물경제의 위축과 경제적 생산성의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 결국 금융시장 전체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잠재적으로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될 수도 있음

나. 전환적 위험

- ☑ 2015년 파리기후협약은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는 모든 나라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의무를 부과함¹⁸⁾
 -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적 전환은 필연적으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적 전환은 기존 산업의 위험을 높임
 - 저탄소 지향의 정책전환과 규제혁신은 해당 산업의 기술적 주도권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줌
 - 이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동 등이 금융시장에 반영되며 이는 시장의 위험을 증가시킴
-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이라는 저탄소 경제로의 정책적 전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평판 위험도 높임
 - 예를 들어, 2015년에 발생한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이른바

18)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은 저탄소 정책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늦추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185개 나라가 비준함. 이후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함

- ‘디젤게이트’는 저탄소 기술 관련 평판위험을 단적으로 나타냄
- 평판저하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은 재무적 투자자의 위험을 높이며
보험회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다.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 위험

- ☑ 기후변화 위험은 보험회사 경영과정에서 보험, 시장, 투자, 그리고 평판위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보험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증가를 통해 영향을 받음
 - 시장위험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 증가로 위험기반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시장수요가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음
 - 투자위험은 기후변화 위험이 보험회사 운용자산의 급격한 가치 저하를 불러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평판위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산운용 관점에서 저탄소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영향을 주게 됨
- ☑ 기후변화 위험이 보험회사의 위험에 주는 영향은 보험회사의 규모와 사업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글로벌 보험그룹의 경우 지역적 분산 효과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위험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인수나 자산운용 등의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3.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인수

가. 일반손해보험

-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증가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면 단기적으로 보험료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인수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만 한편, 이러한 위험 관리에 특화되어 있음
- ❑ 하지만 단기적 보험료의 증가는 결국 자연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상쇄될 수 있음
 - 시장지배적 보험회사라면 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 시장수요가 사라지면서 실물경제로 충격이 파급될 수도 있음
- ❑ 대형 손해보험회사는 지리적 분산과 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 물리적 위험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지만 미래 자연재해의 패턴 변화와 빈도의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자주 발생하면 결국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나. 생명 및 건강 보험

- ❑ 기후변화 위험은 이상기온과 자연재해가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을 높이면서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에 영향을 줌
 - 사망률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은 계리 전문가 그룹에서 초미의 관심사임

- 종신, 연금, 건강 보험 등 생명보험과 제3보험 영역에서 다양한 보험종목에 걸쳐 응용이 가능함
-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이상고온 현상 등이 고령층과 기왕증 환자 등 고위험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인수에 중요한 정보임

다. 농어업보험

- ▣ 농어업보험의 경우,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배가능 작물이나 양식가능 업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도 구아바와 파파야 등과 같은 열대작물의 재배가 가능해지고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음¹⁹⁾
 -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생태변화도 관찰되며 이에 따라 양식이 가능한 어종도 변화하고 있음²⁰⁾
- ▣ 농어업보험의 경우, 정책보험으로서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비가 주로 국가재보험 등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재배작물과 양식어종의 변화에 따른 손해율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함

19) 아시아경제(2019. 3. 7), “[과학을 읽다] 구아바 파파야의 원산지?”

20) EBS(2012), “지구온난화와 제주도 양식업의 변화”

라. 재보험

- ❑ 재보험은 그 특성상 다양한 분산효과를 통해 기후변화 같이 장기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관리가 가능한 종목으로 여겨짐
 - 다양한 종류의 보험위험 인수와 국제적 영업에 따른 지역적 분산 등을 통해 재보험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덜 민감할 수 있음
- ❑ 극심한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재해의 심도가 높아지면 재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형 원수보험회사로부터 수재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음
 - 이는 결국 소형 원수보험회사의 보험인수 능력을 제한하여, 소형 보험회사 위주의 시장구조라면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음

4. 기후변화 위험과 자산운용

-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기후변화 위험의 물리적 위험과 전환적 위험 모두에서 영향을 받음
 - 기후변화 위험의 물리적 위험의 영향을 주로 받는 보험인수와 비교되는 특징임

가. 기후변화 위험과 기업가치 평가의 변화

- ❑ 기후변화 위험은 이에 노출된 기업가치의 평가에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화시킴
 -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가격 하락을 통해 지급능력이 문제될 수 있음

- ▣ 저탄소 정책의 실행은 기존 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친환경 산업의 가치를 상승시킴
 - 바클레이(Barclays)의 투자분석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대응 과정에서 화석연료 산업은 향후 25년에 걸쳐 33조 달러의 매출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분석됨²¹⁾
 - 보험회사는 이들 산업의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친환경 금융자산의 보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함

나. 기후변화 위험과 장기투자

- ▣ 국채나 지방채 또는 부동산과 같은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유가증권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함
 - 국가 산업기반의 붕괴와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둔화 등의 경로를 통해 국채 등 안전자산도 기후변화 위험에 영향을 받음
 - 특히 심각한 수준의 자연재해를 겪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채권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 단, 인프라가 갖추어진 선진국의 경우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비해 자연재해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이미 경제활동과 이를 위한 인프라도 다변화되어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경제가 마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 국채 등과 같은 저위험 저수익 장기채권도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자산가치의 변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대두됨

21) Bloomberg(2018. 3. 22), "Fossil Fuel Industry Risks Losing \$33 Trillion to Climate Change"

- 신용평가사 Stand and Poor's에 의하면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는 취약 국가의 국제 신용등급을 2,5단계까지 떨어뜨릴 수 있음²²⁾
 - 또 다른 신용평가사 Moody's도 보고서에서 가뭄, 홍수,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가 국제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함²³⁾
- ☐ 지방채도 기후변화 위험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각급 정부의 대응 정도에 달려 있음²⁴⁾
- 2012년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뉴욕시의 대응을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대처가 지방채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함
- ☐ 부동산에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부정책과 규제변화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확고할수록 기후변화의 전환적 위험이 부동산 가치에 주는 영향은 지속적일 수 있음

22) CNBC(2015. 9. 13), "Here's how natural disasters can hit a country's ratings: S&P"

23) Moody's(2016. 11. 7), "Environmental Risks – Sovereigns: How Moody's Assesses the Physical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Sovereign Issuers"

24) Business Insurance(2017. 11. 29), "Public Sector Climate Risks Growing: Moody's"

III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1. 회사경영에 기후변화 위험반영

- ▣ 기후변화 위험 아래 보험회사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면서 위기요인은 최소화하는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함
 - 기후변화 위험이 발생시킬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회사 내부에서부터 경영진과 위험관리 사업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기후변화 위험을 보험회사 경영의 의사결정과 사업부의 업무절차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 이사회를 비롯한 각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경영전략과 실행체계에 기후변화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 보험회사별로 규모와 사업모형에 맞추어 기후변화 위험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함

- ▣ 보험회사의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등과 같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함
 -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과 관련된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을 인식하고 인수단계부터 이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함
 - 보험회사는 기후변화 위험 특히 전환적 위험에 따른 투자자산의 가치변동 가능성을 인식하여 이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반영해야 함

- 위험관리 부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위험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전사적위험관리(ERM²⁵)체계에 반영해야 함
 - 기후변화 위험이 보험회사의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위험관리체계에 적절히 반영해야 함

- 준법감시 부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법규위험이 증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법규위험의 증대와 함께 법규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평판위험도 고려해야 함

2.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신뢰도 제고

- 기후변화는 위험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보험산업이 전문성을 살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임
 - 사회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사업모형이 장기에 걸친 보험산업에 소비자의 신뢰는 특히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친환경 기업이미지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친환경 보험상품 개발과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같은 자산운용을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함
 - 최근 관심이 높아진 친환경 자동차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도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함

25) Enterprise Risk Management

- 보험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업무에 친환경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친환경 상품 개발

- ▣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와 접점에서 회사의 친환경적 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임
 - 주행거리를 보험료와 연동시키는 자동차보험은 친환경 보험상품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음
 - 미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건물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또한 전형적인 친환경 보험상품임
- ▣ 뚜렷한 상품차별화가 어려운 보험상품의 특성상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은 보험회사의 성장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함
 -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친환경 보험상품의 보다 적극적인 개발과 판매를 통해 성장성과 신뢰도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음

나. 친환경 자산운용

-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과정을 통해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보험회사의 친환경적 자산운용 전략은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의미와 함께 기후변화의 전환적 위험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가짐

- ▣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장기적 투자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
 - AIG는 스페인 태양광발전에 투자하고 알리안츠는 독일 풍력발전을 운영하는 등 해외 보험회사는 친환경 사업과 투자에 적극적임²⁶⁾

- ▣ 보험회사의 친환경 자산운용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수익성을 함께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각국이 적극적인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면 친환경 투자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6) Evan Mills(2009), "From Risk to Opportunity :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2008", Ceres Report

저자약력

이 승 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금융정책실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CEO Report 2019-0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발행일	2019년 4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3775-903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